

## 패스의 3요소로 살펴본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

영어영문학과  
2012\*\*\*\*  
황현우

축구에서 패스의 3요소라는 것이 있다. 각도, 강약, 타이밍을 말한다. 다른 말로 방향, 강도,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패스의 3요소는 축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프리포즈를 할 때도 패스의 3요소가 적용된다.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분위기를 잡아서 부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준비가 된 시기적절 한 때에 프리포즈를 해야 목표를 그르치지 않는다. 이렇듯 패스의 3요소는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철학의 문제에게까지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는 전통, 명예, 규율, 탁월함을 지향하는 명문 고등학교(윌튼)에 새로 부임해온 영어선생(키팅)이 주인공이다. 그는 학교의 교훈과 사뭇 다른 교육철학으로 가르치고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낸다. 키팅의 교육철학은 그가 공부했고 졸업했던 학교의 그것과 상반된다. 그는 교과서의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온 서문 부분을 찢으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영화 속에서는 키팅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연극을 하려는 자신과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하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키팅 선생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학생들은 다시 기존 방식의 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된다.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을 패스의 3요소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과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옳은 삶의 방식인가? 과연 시를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교과서를 찢으라고 한 요구가 적절한 것이었나? 또한 널에게 연극을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것이 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조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친 것이 시의적절 했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 즉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모님의 말을 따르

지 않는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삶의 방식 중 옳은 삶의 방식이 있고 틀린 삶의 방식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한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도 다르며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외모는 물론 타고난 천성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 성격은 변하기도 한다. 물론 가진 재능도 다르고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차렸음에도 가난과 같은 가정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면 부상으로 더 이상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전직 축구선수의 인생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 그 자체와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판단 할 수 없다.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의 요점은 "Follow your heart and make your life extraordinary"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면서 또는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관계들 역시 그 사람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분명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은 이상적이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저 삶의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

두 번째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 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지 살펴보면 기존 선생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키팅 선생은 첫 수업시간에 학교의 역사와 졸업생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로비로 데려 간다. 그는 졸업생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Carpe Diem" 현재를 움켜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닐이 자신이 원하는 연극배우의 꿈과 부모님이 원하는 의사라는 직업 사이에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닐은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키팅 선생의 메시지를 통해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된다. 용기를 내면 낼수록 아버지와 닐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닐이 키팅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키팅은 아버지에게 연극이 하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조언이 적절했을까? 과연 키팅은 제자 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가정 분위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만약 충분히 닐의 부모님과 그가 자라온 가정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조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생각해 볼 때 키팅

선생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도 닐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의 교육 방식 또한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수업에서 시를 분석하는 법이 나오는 교과서의 서문을 찢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책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현대 자기계발 책들은 책에 밑줄을 긋고 접어 표시하고 생각을 메모하라고 강조하지만 책을 찢으라는 키팅의 요구에 당황해하는 학생들과 특히 깨끗하게 찢으려고 자를 대어 찢는 캐머런의 행동에서 우리가 책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xcrement'(배설물)라는 표현까지 하며 교과서의 저자를 비판한다. 물론 시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지만 오랜 시간을 바쳐 연구한 결과에 대한 존중 없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적절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키팅 선생의 교육철학이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에게 강하게 전달되어지기에 적절한 시기였는가라는 질문에 "No!"라고 밖에 답할 수 없다. 사춘기의 생물학적 의미는 '신체의 성장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性徵)이 나타나며 생식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자아의식도 높아지고, 주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강해지며,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하며 반항적인 경향으로 치닫는 일이 많고 정서와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이다. 한마디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이다. 사춘기의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경험상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키팅 선생의 강력한 메시지는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이끌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닐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만약 부모님과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면 키팅 선생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찰리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내신문을 통해서 여학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회시간에 교장을 조롱하는 행동을 취한다. 그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의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카르페 디엠'의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졌다.

영화는 닐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키팅 선생이 쫓겨나게 되고 이를 거부한 찰스는

퇴학을 당한다. 그리고 키팅을 따랐던 나머지 학생들은 전통주의 방식의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키팅이 교실을 나설 때 보여준 학생들의 모습은 그들이 키팅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또 그 것을 슬기롭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그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다소 급진적이고 사춘기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마지막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이상적인 삶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치 있는 시도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